경제혁신 3개년 계획 |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 창조경제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6년 3월 9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3월 9일(수)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문동민 과장(044-203-4210), 권주현 사무관(4215)

주형환 산업부장관, "16년 30대 그룹 123조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밀착 지원할 것"

- 산업부,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 개최
- 주요 대규모 프로젝트는 범정부 전담 지원반을 구성키로

◈ 이번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16년도 30대 그룹 투자계획은 122조 7천억원 규모라고 발표**(전년 실적대비 **5.2% 증가**)

◈ **주형환 장관**은 "**투자계획 수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질없는 이행**"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

○ **주요 대규모 프로젝트별로 범정부 전담지원반을 구성**하여 도로·용수·전력 공급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

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투자의 전력 공급**

⇒ ('16.말, 1단계 공장가동) **금년 10월까지 송전선로**(154kV) **건설**

⇒ ('18.하, 2단계 공장가동) '18.4월까지 **송전선로**(154kV) **2기 추가 건설** 및 **오성 열병합발전소 상시운전**

② **LG디스플레이 파주 OLED 공장 투자의 전력공급**

⇒ 필요한 추가전력 공급을 위한 **전기공급약관 개정**(3.9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6.3.9.(수), 롯데호텔에서 **주요 투자기업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 일시/장소 : '16.3.9(수), 07:00~09:00 / 롯데호텔서울 사파이어볼룸(3F)
▪ 참석자 : 산업부장관, 주요 투자기업(17개사) 사장단 등

□ 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사업재편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지원역량을 총동원**할겠다."라고 말했다.

① **(투자계획 이행지원)** 30대 그룹의 투자계획이 **올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지원 ⇒ 주요 대규모 프로젝트는 '범정부 전담 지원반'**을 구성·운영하여 신속히 지원

* (사례) LGD OLED 신규 투자(파주, 10조원) 정부합동지원반 구성('15.11월)
→ 향후, 삼성전자(평택, 15조원), SK하이닉스(이천, 31조원) 등 지원반 구성 추진

②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기업활력법」 제정**(8월 시행)을 통해 사업재편의 **부담은 줄이고 예측 가능성은 높이게 됐다**고 평가하며,

- 경쟁국에 앞서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기활법을 활용**하여 **선제적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길 당부**

③ **(경제활성화법 처리촉구)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합**이 이뤄진다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 큰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날 간담회에서 **'16년도 30대 그룹 투자계획은 122.7조원(전년 실적대비 5.2%증가)** 규모라고 발표했다.

* 전경련이 별도 보도자료 배포

< 30대 그룹 투자 계획 및 실적 >

(단위: 조원, %)

	2014년	2015년*	2016년	
	실적	실적	계획	증감율(전년실적비)
총 투자	116.5	116.6	**122.7**	**5.2**
- 시설투자	84.3	84.9	90.9	7.1
- R&D투자	32.2	31.7	31.8	0.1

* '15년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10.5조원) 포함시, '16년 투자계획은 전년실적대비 3.5% 감소
* 지분투자 및 해외투자 제외한 국내 총투자금액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09 09:10:20

□ 특히,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수반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산업부가 **선제적 대안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 기업들의 **생산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①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공장 투자 관련(15.6조원 투자, '15~'18년)

분야	투자 애로내용	해소방안
전력 공급	▪ **('16년말~, 1단계)** 초기 공장가동에 필요한 원활한 전력공급	⇒**154kV 송전선로 건설** ('16.3월 착공~10월 완공)
	▪ **('18.6월~, 2단계)** 본격 공장가동에 따른 최대생산용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전력공급 확대	⇒**154kV 송전선로 2기 추가 건설**('18.4월 완공) + **오성 열병합발전소 상시 운전**
	▪ **(3단계)** 중장기적인 증설투자에 대비한 추가 전력공급	⇒**500kV 북당진-고덕 송전선로 건설** 등
도로 인프라	▪ 제품 수송 등을 위해 **산업단지 진입용 고덕 IC** 등 **도로 인프라 조기** 구축	⇒**고덕IC 준공 시기 단축** ('17.12월 → **'17.下**) ⇒**어연 IC 연결 대안도로 개설 ('17.3월)**

※ *(참고3)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고덕산업단지) 전력공급 방안*

② LG디스플레이의 파주 OLED공장 투자 관련(10조원 투자, '16~'18년)

분야	투자 애로내용	해소방안
전력 공급	▪ 추가전력(90만kW) 필요로 수전전압 2원화* 필요 * 전기공급약관 "1계약 1전압" 원칙 적용	⇒154kV, 345kV로 수전되도록 **전기공급약관 개정(3.9일)**

□ 참석자들은 투자확대,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으며,

○ **전력·도로 등 인프라 적기 완공**을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에 필요한 **R&D세액공제 확대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요청 했다.

※ 간담회 주요 발언 내용은 행사 이후에 서면 자료로 배포할 예정

□ 주 장관은 기업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검토 의사를 표명했다.

○ **태양광 연계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방안을 신속히 검토하여 올해 추진

○ **기업들이 하고자하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은 **원칙적**으로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 **해외 항공기 엔진개발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장기저리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도록 검토

□ 한편, 산업부는 주 장관 취임이후 20여 차례의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총 149건의 기업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해소를 추진중이다.

○ 지난 2월 30대 그룹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사물인터넷 적용 가전제품의 대기전력 기준완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비상전원 인정' 등에 대해 **2월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조치 완료했다.**

< 30대 그룹 간담회(2.4일)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 해소 사례 >

▪ **(사물인터넷(IoT) 적용 가전제품 대기전력 기준완화)** 고시개정 완료(2.29일 시행)
▪ **에너지저장시스템(ESS)** 2.24일 관계부처 합동 "ESS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문동민 과장(☎ 044-203-4210), 권주현 사무관(☎ 044-203-42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09 09:10:20

참고 1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 개요

□ 행사개요

○ 일시 : '16.3.9(수), 07:00~09:00

○ 장소 : 롯데호텔서울 사파이어볼룸(3F)

○ 참석자 (총 20여명)

- (정부) 산업부장관, 관련 실·국장

- (민간) 주요 투자기업 17개사 사장단(CEO) , 전경련 등

□ 세부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07:00~07:05 (05')	기념촬영	
07:05~07:10 (05')	**모두 말씀**	· **산업부장관**
07:10~07:30 (20')	**2016년도 30대그룹 투자계획**	· 전경련(조찬 병행)
07:30~08:57 (87')	**기업별 주요 투자계획** 및 **애로/건의**	· **산업부장관 주재**
08:57~09:00 (03')	**마무리 말씀**	· **산업부장관**

※ 모두 말씀까지 언론 공개

참고 2 참석자 명단

기업명	성명	직함
삼성전자	전영현	사장
삼성디스플레이(주)	박동건	대표이사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SK하이닉스	박성욱	대표이사 /사장
LG전자㈜	이상봉	사장
L[illegible]디스플레이㈜	한상범	대표이사 /부회장
롯데케미칼㈜	허수영	대표이사 /사장
㈜포스코	김진일	대표이사 /사장
GS칼텍스	김병렬	사장
한화테크윈	신현우	대표이사 /부사장
KT	윤경림	부사장
두산중공업	정지택	부회장
효성	이상운	대표이사 /부회장
대한항공	함명래	전무
현대중공업	장형진	상무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09 09:10:20

참고 3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고덕산업단지) 전력공급 방안**

□ **(1단계) 공장 초기가동 및 생산용량 확대 단계 ('16년말 ~ '18.6월)**

○ **고덕변전소(345kV)의 154kV설비 부분을 조기 준공**('16.10월 완공)하고, **154kV 2회선 선로*** 건설('16.3월 착공, 10월 완공)을 통해 공급

* 154kV 송탄-오성복합 송전선로 분기 연계(2회선)

□ **(2단계) 최대 생산용량 확보 단계 ('18.6월 이후)**

○ **154kV 송전선로 2기*를 추가로 건설**('18.4월 완공)하고, 인근 **오성복합발전소를 상시 운전**하여 전력공급

* 154kV 고덕-평택 송전선로(2회선), 154kV 고덕분기 송전선로(4회선)

○ 이 경우, 고덕산단 전력공급을 위한 고덕변전소에는 **154kV 송전선로 8회선, 발전소 상시운전 등**을 통해 **전력공급원 다중화**

- **송전선로 2회선 동시고장 상황 발생시**에도 전력공급에 **차질 없음**

□ **(3단계) 중장기적인 증설투자 대비 단계 (시기 미정)**

○ **500kV 북당진-고덕 송전선로* 건설** 등을 통해 전력 공급

* 삼성전자 전력공급 뿐 아니라, 서해안지역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필수설비임

○ **당진시 건축허가 반려로 착공이 지연중인 북당진변환소* 및 북당진-고덕 당진구간**의 경우, **소송**을 통해 조속 착공 추진**

* 한전은 **예정부지 주변지역(1.57km 이내) 6개 마을 민원합의 및 건축허가를 위한 법적요건을 완비**하였으나, 당진시는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와는 무관한 당진지역 모든 철탑 지중화 등을 요구하며 허가 반려**

** 당진시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중**('15.11월, 한전)

※ (문의) 전력산업과 이원주 과장(044-203-5245), 임경섭 사무관(044-203-5246)

※ 실제 발언내용은 자료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 모두말씀 전문

MOTIE
ISTRY OF
DE, INDUSTRY & ENERGY

2016. 3. 9.

산업통상자원부
산 업 정 책 국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09 09:10:20

1. 인사 말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30대 그룹 간담회('16.2.4) 때
약속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는
기업의 투자애로 해결이라는 숙제를
매월 검사받고
또 새로운 숙제를 받아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투자기업의 CEO 여러분께서 참석하신 만큼,
투자와 수출을 포함한 기업 애로를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차선의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최근 수출 동향

수출이 어렵습니다.
다만, 2월 들어 수출 감소폭이
1월에 비해 다소 완화되고(△18.8→△12.2%),
수출물량은 증가세로 전환(△5.3% → +11.2%) 되었습니다.

최근 수출 부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된 결과입니다.

이에 수출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대체 신산업의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수출점검 체계를 상시화하고,
민·관 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통해
수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지난 주 이란을 방문하여
금융,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보건·의료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와 같이

새로운 기회시장 진출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민간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겠습니다.

* 1962년 「수출입국(輸出立國)」 이후 반세기
1986년 「공업발전법」 이후 한 세대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09 09:10:20

특히,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사업재편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지원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3. 민간의 투자 촉진

< 旣 건의 투자애로 해소 >

20번의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속도감 있게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가전 대기전력 기준 완화,
전기저장장치(ESS)의 비상전원 활용,
소규모 전력거래 허용 등은
이미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149건의 기업 건의사항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치계획이
이미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투자 프로젝트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공장 투자와 관련된
전력공급 애로에 대해서는

우선, 1단계로 3월중에 송전선로(154kV) 착공에 들어가
금년 10월까지 완공하여,

올해 말 예정된
초기 공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18년 하반기 이후
본격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은

송전선로(154kV) 2기 추가 건설과
[illegible] 열병합발전소 상시 운전을 통해
[illegible]에 문제가 없도록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추가 공장 건설 등에 대비하여,

북당진-고덕간의 송전선로(500kV) 구축도
해당 지역과 긴밀히 협의하여 풀어가겠습니다.

LG전자 파주 OLED공장 투자에 따른
추가 전력소요에 대해서도,

금일 중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차질 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09 09:10:20

< 2016년 30대 그룹 투자계획 >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 계획이
1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도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획 수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질 없는 이행입니다.

30대 그룹의 투자계획이
금년 안에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범정부 전담 지원반을 구성하여,
도로·용수·전력 공급 등
미시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신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 는
대통령님의 말씀(무역회의, 2.17)과 같이,

Negative 방식의 획기적 규제심사를 도입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 분야 R&D 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신성장동력 R&D(20%)로 인정하여
일반 R&D(2~3%)에 비해
세액공제율을 우대하겠습니다.

또한, 異업종기업들이 합종연횡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MOTIE
ISTRY OF
DE, INDUSTRY & ENERGY

선그,차ㅏ 스마트카를 시작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의 융합도 중요합니다.

서비스산업은
그 자체로도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지만,

선진국처럼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1,500여 일이나 지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합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09 09:10:20

4.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선제적 사업재편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활력법」이 금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상법」상 절차 간소화와
「공정거래법」상 규제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부담은 줄이고,
예측 가능성은 높이겠습니다.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중국도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을 통해
철강·시멘트 등 과잉 생산능력을 감축하는
'공급 측면의 개혁' 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국에 앞서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선제적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 맺음 말씀

150년 전 찰스 다윈은 적자생존(適者生存)을 말했지만

* *"It is not the strongest of the species that survive,*
nor the most intelligent,
but the one most responsive to change". - C. Darwin

초연결·융합, 속도경쟁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장 빠르게 변신하는 자(速者生存)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 *"In the new world, it is not the big fish which eats the small fish,*
it's the fast fish which eats the slow fish" - Klaus Schwab (WEF 회장)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신산업 진출,
그리고 선제적 사업재편에
속도감 있게 나선다면,

우리 기업과 산업은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09 09:10:20